

외국인 인력 공급·기업자금 지원 ‘인구소멸 위기’ 지방도시 살린다

농식품부, 관계부처 협업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191곳 대상
올해 30개 내외 과제 선정하기로

인구 급감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각 지방의 도시, 군(郡), 읍(邑) 등을 살리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소멸위기 지역에 외국인 인력 공급 및 기업의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협업프로젝트는 국내 89개 인구감소 지역 및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 및 농촌협약에 이미 선정(2021~2024년)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행안부와 공동으로 예비 선정된 22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에 더해 실행 가능성, 효과

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10개 과제) 대비 규모를 확대해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 지자체가 주도해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중기부가 협업해 기업 지원 및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지역별 외국인 우수인재 배정인원을 확대해 지역에 외국인 공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 확충 및 연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술애로 해소를 비롯해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와 함께 기업성장, 외국인 채용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지역기업을 발굴해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

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협업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내실 있는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농식품부의 김보람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협업 기회가 됐다”며 “진출 기업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융복합해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지역의 자율성이 발휘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앞줄 오른쪽)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쿠광의 산재·노동탄압 의혹 환노위, 정종철 등 증인채택

국정감사계획서·출석요구안 의결
증인·참고인 등 총 35명 출석키로
‘티메프’ 관련 구영배 대표 출석요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광 노동자 산재 및 노동탄압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쿠광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과 홍용준 쿠광CLS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1일 환노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은 19명, 참고인은 16명 등 35명이다. 오는 10일 쿠광노동자 사망 등 산재, 노동탄압, 열악한 노동조건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쿠광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과 홍용준 쿠광CLS 대표이사를 고용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넷그룹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다만,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 이상균 HD현대 대표이사 사장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고용노동

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22일에는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산업재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뉴시스 멤버 하나와 어도어 대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나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오는 25일 열리는 고용부 및 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같은날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하나는 지난 11일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북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고, 해당 매니저가 ‘무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용부 및 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최미영 한국노총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필리핀 가사관리사 노동실태 관련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다. 김순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코디코닥지부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임금현황 파악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kdh@

aT, 카자흐서 김밥·음료 등 ‘한국 쌀’ 활용식품 홍보

알마티 지역 진출 CU 8개 점포서
한류 연계 2030세대 호응 이끌어

국내산 쌀 가공식품의 인기가 중앙아시아에서도 확인됐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중하순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 진출한 편의점 CU 8개 점포에서 한국산 쌀을 활용한 소비자 체험 홍보행사가 열렸다.

aT는 행사장에 전남 해남 쌀로 만든 김밥과 쌀음료 등 다양한 쌀가공식품의 시음·시식 행사를 마련해, 방문객 8600여 명의 입맛 공략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음식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현지인 플루언서를 섭외해, 한국산 쌀의 특징과 밥 짓는 법이 담긴 동영상과 영상과 즉석밥·즉석죽 제품 등을 홍보했다.

영상을 통해 ▲한국산 쌀 활용 요리와 쌀가공식품 소개 ▲한국산 쌀 인박싱리뷰 ▲한국식 편의점 김밥공장 생산현장 투어 등을 소개했다. 특히 한류와 연



지난달 19~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에서 열린 한국산 쌀 가공식품 소비자 체험행사. /aT

계해 20, 30대의 호응을 이끌었다.

시식 행사에 참여한 현지인의 소감도 전했다. 한 방문객은 “K-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던 김밥을 직접 맛볼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카자흐스탄에서 더 많은 K-푸드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aT는 카자흐스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진출 한국계 편의점 CU와 지난 4월 수출 확대 MOU를 체결했다. 현지 수요가 높은 한국 김밥과 도

시락에 안성맞춤인 해남 프리미엄 쌀을 제안해 5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이끈 바 있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주로 식사로 소비하던 쌀의 해외 소비영역을 늘리고자 국산 쌀로 만든 K-음료, K-디저트 등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중”이라며 “신선 쌀은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쌀가공식품의 해외 판로를 확대해 K-푸드 수출 영토 확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경영진-신규 임용자 ‘온보딩 포럼’ 실시

지역난방공사, 이색 교육 프로그램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신입직원의 적응을 돕고 조직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이색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난은 지난 30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68명의 신규 임용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입직원 교육현장인 미래

개발원에서 ‘온보딩 포럼’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일반적인 온보딩 프로그램이 조직에 새로 합류한 직원 대상 실무위주 일방향 교육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번 행사는 ‘한난이 바라는 신입직원, 신입직원이 바라는 한난’을 주제로 신입직원과 경영진이 ‘개인인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진솔한 생각’을 공유하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포럼은 신입직원 5명이 한난에 바라는 점을 대표 발제하고, 이어 경영진이 신입직원에게 바라는 점을 발제한 뒤 토론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신입직원들은 ‘개인인 조직이 동반 성장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 등을, 경영진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조직 소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창의적 종합설계’ 국민 심사위원회 모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총 3000명

“기발한 상상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최고의 혁신 아이디어에 투표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024 공학페스티벌에서 올해의 공학 아이디어를 결정할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국민 심사위원회’ 3000명을 11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심사위원회는 11월 15일 열리는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본선 아이디어 심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본선에 진출한 13개 작품의 현장 발표 녹화본을 보고 이틀(11.19~20)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가린다.

심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22일 서울 한강 세빛섬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시상식 초청권과 경품 제공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는 11월 22일 열리는 2024 공학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이다. 전국 73개 공과대학이 참여해 기발한 혁신 아이디어를 겨룬다. 출품되는 캡스톤디자인 작품들은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공학페스티벌 당일 현장에서는 미래 상상을 주제로 한 단편 영화(숏폼) 공모전, 우주 최강 산업계 인사 토크쇼, 축하공연 등 세부 행사도 진행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우리 청년 공학도들의 빛나는 아이디어와 우수한 공학적 설계 역량을 국민들께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하려면 공학페스티벌 공식 누리집(<http://www.e2festa.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